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6년 (단기 4345년) 1월 30일 (토)

http://dongguk.info

제237호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 가치 높이자”

성공 동문 기업체 탐방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

올해 첫 상무위원회 개최

본 총동창회는 2016년도 기본 정책 방향을 “화합과 혁신으로 공감대 확산 - 새로운 총동창회 위상 확립”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른 캐치프레이즈로는 ‘뿌리있는 동창회’ ‘상생하는 동창회’ ‘자긍심 넘치는 동창회’를 내걸고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1월21일 오후 열린 금년 첫 상무위원회에서 “동국대학교를 모교로 두었다는 보람을 갖도록 사명감있는 봉사도 바른 동창회를 만들어 미래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동창회와 모교는 대학발전의 소중한 두 축인데 지난해 우리는 이 두 주체가 동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서로 힘들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로서



▲ 2016-1차 본회 상무위원회가 1월21일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는 협력하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신뢰받고 희망을 심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무위원회는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뿌리찾기 및 자긍심 고취 △조직 재정비 및 네트워크 강화 △재정 자립기반 확충 △장학사업 및

후배 취업 알선 △각종 행사 개최 계획등을 정했다.

구체적 실행 내용으로는 동국 뿌리찾기의 첫 단추로 초대 회장인 만해 한용운 선배 성지(묘소) 참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선양사업 협력, 만해마을 탐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대 총동창회장 조명사업과 성공기업 동문 발굴 및 현장 탐방, 조직 네트워크 강화, 장학사업, 각 분야별 동국인택지도 홍보, 해외지부 방문 등의 연간 계획을 정리했다.

조직 강화의 일환으로는 동창회보와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총동창회 산하 단위동창회 실태파악 및 인큐베이터 역할, 80,90년대 학번 동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학사업은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의 조기 정상화와 함께 기업체 장학 확대, 1:1 지정장학제, 되돌림장학, 클라우딩 펀딩방식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금년도 주요행사(2면 도표)로는 템플스테이가 새롭게 추진되며,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 동국인 남산걷기대회, 영화 및 공연물 관람, 국가주요시설 견학 등의 행사를 갖게 된다.

“재단 임원 조속 사퇴” 촉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재단)는 1월11일 오후2시 모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98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 전원 사퇴 결의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 임기가 적게 남은 순서대로 사퇴하기 합의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2월3일 일산병원에서 열린 제297차 이사회에서 학생·직원·동문 단식농성 등의 학내 혼란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또 한만수 교수협의회 회장은 학교 비방 및 폭력행사, 정창근 前 총장 직무대행은 세계불교센터 건립 추진 등을 문제삼아 각각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 내용과 관련, 학생·교수·동문들로 구성된 범동국인비상대책위원회는 1월14일 ‘동국대학교 정상화의 길을 외면한 이사회의 결정을 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3월까지 새 이사회를 구성하라 ▷교수 징계 등 구성원 사이 분열 조장 조치를 철회하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조속히 새 이사를 추천하라 ▷일면 스님은 즉시 이사 사퇴하라. 보광 스님은 책임을 통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모교 문제는 학교 안정이 우선이고, 모든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는 대승적 포용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조계종, 6월까지 승려이사 교체 시사

조계종이 지난 1년여 동안 내용을 겪어온 모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사후보 추천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 종단차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총13명의 이사 중 스님이사 9명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교신문이 보도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는 1월 26일 제7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공식중인 4석의 동국대 재단이 사 추천과 관련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는 중앙

종회의 추천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사후 추진 형식으로 바꾸어 스님이사 9명에 대한 교체 속도를 높여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중앙종회의 요구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 이번 결의는 사퇴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동국대 이사회를 향한 종단의 간접적 메시지 성격이 짙어 모교 법인이사회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면
안내

04_05면 전영화 총동창회장 신년인터뷰 08_09면 동국문학 110년 12_13면 동국인의 밤 성향

이연택 前 이사장 측, 업무 인계하나? 안하나? 동국장학회 2년째 걸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관상 소재지로 사무소 이전” 시정 조치

- 총동창회장이 당연직 이사장
- 임기는 총동창회장 재임 기간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2014년 이후로 2년째 장학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총동창회 핵심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장기간 표류하면서 장학금을 출연하려는 동문이나 장학금을 받고싶은 재학생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국장학회는 총동창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총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동국장학회는 임기가 끝난 이연택 전 이사장측이 인계해 주지않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어 급기야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10일 ‘동국장학회 특별감사 조치사항’ 통보를 통해 행정상 처분과 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왔다.

주요 감사내용은 △장학법인의 기금은 입출금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승인 없이 사용 △장학법인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2016.1.29(금)까지 사무실에 비치 △사무소는 빠른 시일내에 정관상 소재지(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로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특별감사 당시 장학회 통장과 인장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종윤 동문이, 회계장부는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SK허브 1005호에 각각 비치하고 있었다.

또한 이렇다 할 장학활동도 없는 상태에서 동국장학회 기금에서 일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사칭 동창회 유지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국장학회의 파행은 총동창회 분규 와중과 맞물려 2014년6월27일부

터 7월10일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후임을 2개월 이내에 재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정관 19조3항)을 어기고 3-4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이사 10인과 감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재적이사 15인 중 3인(이연택, 김동정, 이인정)만 출석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정관 제26조 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로 사실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동국장학회 사무소 소재지(정관 제3조)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현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동국대총동창회’로 되어 있음에도 이연택 전임 이사장 측은 2014.3.8 장학기금 관련 통장장과 장부일체를 무단 인출하여 소재불명인 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일부 뜻있는 동문들은 “법적 인정도 못받고 총동창회 대표성도 없는 동문들이 장학사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동국장학회의 조기 정상화로 기부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후배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관계 동문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 2016 동창회 주요일정

- 1월 30일 동창회보 237호 발행
- 3월 하순 동문기업체 탐방
- 4월 초순 만해 한용훈 초대 회장 묘소탐방 (성지순례)
- 19일 4.19 추모식
- 5월 중순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국회의원 축하연
- 6월 중순 동국인 골프대회 하순 미주동문회 방문
- 7월 중순 템플스테이
- 8월 중순 영화 단체관람
- 9월 중순 동문기업체 탐방 하순 국가안보 견학
- 10월 초순 동국인 남산걷기대회 중순 86학번 홀커밍데이
- 12월 중순 동국인의 밤

혜동회 입학70주년행사 협의



▲ 왼쪽부터 박영민, 이남진, 전영화 회장.

원로 선배들의 모임인 혜동회(혜화전문 동문) 박영민 회장과 이남진 총무가 1월28일 총동창회를 방문, 전영화 회장과 입학70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을 협의했다.

46학번인 혜동회는 오는 5월8일 모교 개교110주년기념식에 참석의사를 피력하고 총동창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원들은 96세가 최고령자로 평균나이가 92세, 현재 연락회원은 25명이다.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기부금을 승인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행정상 처분 : 주 의 - 관계법규 및 지침준수 - 기부금은 기본재산 편입 또는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 사용승인 후 목적사업에 사용
법인 통장 등 회계장부 관리 소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법인 통장 및 회계장부를 2016.1.29(금)까지 사무실에 비치하시기 바람
사무소 소재지 무단 임시 이전	- 빠른 시일 내에 정관상 소재지로 이전하시기 바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지방·공공·소통·협력]

비전과 열정이 있는 기업, 한전KPS

오늘을 넘어 미래를 봅니다!

창조적 선도기업 한전KPS
세계를 이끌어가는 앞선 기술과 최고의 인재들로
초일류 전력설비 정비전문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www.kps.co.kr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빛가람동 377)

한전KPS주식회사

“남산 코끼리...” 응원가 사방에 울려 퍼지다

여자총동창회 | 송년의 밤



여자총동창회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김영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명과 전영화 총동창회장, 김종필 총동창회 소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28일 오후 6시30분 모교 학술문화관 ‘라운지 오’ 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김인순(58국문), 홍성숙(61불교) 동문 등 5,60년대 학번부터 10년대 학번까지 참석하였으며, 조종미(81교육, 에이서유학원장)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직할경주동창회 | 신년인사회



직할경주동창회(회장=이상록) 임시총회 겸 신년인사회가 공석돈, 박병훈, 김종형 등 역대회장, 최규철 전 경주캠퍼스 부총장, 정환민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비롯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26일 저녁 7시 경주시내 웨딩파티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과 및 결산보고와 금년도 사업계획 협의를 가진뒤 회원간 신년 덕담으로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부산동창회 | 정기총회 겸 신년회



부산동창회(회장=박진호) 2016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26일 오후 6시30분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열렸다.

박진호 회장은 “영남지역 동문 단합의 중심으로

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울캠퍼스 방문행사 △기존 참여동문 1인당 2명찾기 운동 △단위 소모임(동국회, 동산회, 경찰모임, 산악회, 골프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부산동창회의 내일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동창회 | 송년의 밤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박태현) 송년의 밤 행사가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12일 저녁 광주시내 히딩크호텔에서 열렸다.

박태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016년은 광주전남지부동창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에 걸맞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동창회 | 신년하례회

전북지부(회장=운영창)는 1월19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송정에서 ‘2016년 신년모임’을 갖고 차기 회장단 인수인계 절차와 지부 발전에 공헌한 육기동 회장에 대한 예우 문제, 지부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상직 동문(89졸·경영학)을 비롯 노장청 동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북지부 이승석 총무 제공)

수원동창회 | 총회 및 신년회

수원동문회(회장=이석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가 김용구 전임 회장과 김환배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6일 저녁 시내 화청갈비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현 이석태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2017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장에 최상호(81/89 법학, 변호사)동문을 추대했다.

ROTC동문회 | 회장 이·취임식



ROTC동문회(회장=정진우) 정기총회 및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이 1기 원용선 고문,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회원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 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있었다. 신임회장에는 김환진(78경행, 18기) 동문이 취임했으며, 사무

총장에는 이남식(80토목, 22기) 동문이 선임됐다.

또 1월26일에는 모교 상록원에서 회원 1백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었다.

한편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1월27일 김환진 ROTC회장을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신규 위촉했다.

건축공학부동창회 | 송년의 밤

건축공학부동창회 송년모임이 구립 1일 하한기 회장,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상록원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국건축 50년 소개와 경과보고, 사업계획 설명, 감사패 시상,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불교대학원동창회 | 송년 법회

불교대학원동창회 임시총회 겸 송년법회(동불인의 밤)가 구립 18일 임원갑 회장, 대학원장 종호스님, 전영화 총동창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계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석두 사무총장 사회로 1부 임시총회, 2부 송년법회, 3부 각기별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 송년의 밤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김석만 회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이대원 경주캠퍼스 신임총장, 황의서 사회과학대학원장을 비롯한 역대 대학원장, 회원 및 재학생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립23일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이종석 부회장 사회로 안전인 △2015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16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 대한 시상을 가졌다.

남가주동창회 | 송년의 밤

남가주동창회(회장=박영규)는 구립 20일 오후 6시 JJ그랜드호텔에서 송년의밤 행사를 갖고 선후배들간에 상호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인 동아줄(동국의 아이들이 즐즐이 모인다) 캠페인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일꾼 회장으로 정체성 · 결속력 · 자긍심 견인”

임기 2년차를 맞는 전영화 총동창회장(65/69경찰행정)은 “화합을 통한 동창회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인사동 총동창회관에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같이 말하고 올해는 새로운 유력 동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며, 만해 한용운 초대 총동창회장을 기리는 뿌리찾기와 동문조직 강화, 장학사업 확장, 모교 및 학교법인과의 협력 방안 등을 화해와 단합의 토대 위에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화 총동창회장 신년 인터뷰



대담 : 이 계 흥
(총동창회 홍보위원장, 65국문)

총동창회 저력 과시 ‘감동’

- 지난 해는 총동창회로서도 안팎의 도전과 응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엮어나 가기로 하죠.

“지난 한해 어려운 시기에 총동창회 장직을 맡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장직을 수행해온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동문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결속의 힘이 컸습니다. 저는 화합을 통한 동창회 안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는 작년 12월14일 서울 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실증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단합의 정신과 총동창회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잔치였습니다. 700명 가까운 동창회원들이 흠을 가득 메운 가운데 결속을 다진 것은 우리 총동창회의 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타대학 동창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낭송회 등 차별화된 송년회에서 참여 동문 모두 자부심과 긍지, 동국대학교를 모교로 두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게끔 수준이 높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 동기별, 학과별, 직장 및 지역동창회 등 여러 갈래의 단위 동창회의 참여가 눈에 띄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각 분야 명망가 중심의 동문 뿐 아니라 80년대 90년대 학번의 동문들이 절반 이상을 참여해서 노장청이 어우러지고, 각 학과별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도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총동창회 정서에서 소외됐던 후배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 동문 모두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문사회의 시각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표출되었습니다. 대선배를 모시고 미래가 혁혁한 젊은 후배들이 참여해 전통을 잇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 시 낭송회와 2부 연회 진행 등 자발적 재능 기부도 있었죠?

“연예인 동문 모두 자발적 재능기부였고, 시 낭송에 나선 신경림 문정희 동문 등 대문호들도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한 케이스였습니다. 각 분야의 인적 자원과 인재 풀이 두터워졌다는 동문사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쩔

든 지난 2015 송년회를 계기로 우리 총동창회는 조직을 착근시키고 원대한 비상을 꿈꾸는 출발선에 섰다고 봅니다.”

“변화 통해 희망 심겠다”

- 2016년을 맞아 총동창회의 운영방침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려운 것일수록 심플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지를 모아 타결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화해와 협력, 단합의 정신을 기조로 총동창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를 ‘변혁을 통해 희망을 실현하는 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근본은 만해 한용운 초대 총동창회장의 정신입니다. 한용운 대선배님의 정신을 동창회 정신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한용운 선배님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단합과 일치의 운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정신적 지표가 선다면 그 정신으로 뭉칠 것은 당연합니다. 소수에 의해 동창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동창회

원 누구나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단결과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신 한용운 선배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지가 된 한용운 선배님의 묘역 순례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체성의 확인을 위해서죠. 다른 대학에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뿌리깊은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해마을에서 동문템플스테이를 갖고, 지자체와 연계해 국가유공자 관리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도록 할 것입니다.”

- 동문 발굴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많은 유력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동창회 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내부적으로 자발적 참여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노선배님들 중심의 모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둘째, 동창회 참여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적 네트워크

조직강화 · 장학사업은 총동창회 ‘兩 날개’

만해 한용운 초대 동창회장의 ‘시대정신’ 으로 재도약

크를 통해 사회적 성취나 자기 발전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겠나 하는 이해 측면적 접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동창회 활동이 활발한 대학은 참여 자체가 영광이고, 알게모르게 자기성취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기대를 갖고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부적 네트워크를 정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유능한 동문들의 참여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하면 엄청난 인재 풀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 이런 때일수록 총동창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입니다. 저는 일꾼동창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명망가 중심의 동창회장이 활동해왔는데 이는 일꾼 동창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창회장이란 관록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실무 하나하나를 챙기고, 지역동창회, 학과동창회, 기수별 동창회, 직능별동창회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 정체성과 결속력을 높이면서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이의 실천방안으로서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말씀하신다면...

“각 분야 역량있는 동문을 찾아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동창회 차원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문 연예인 출연 영화관람, 템플스테이, 주요 전적지 등 국토순례, 동문명사 특강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동창회 활동을 강화토록 지원하고 미주와 중국 등 해외동창회 방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동창회’ 구현

- 조직 강화를 위한 복안을 말씀해주시시오.

“지방조직과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경주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가 골프대회를 주최했는데 참여회원이 많았습니다. 이처

럼 총동창회와 지방동창회간의 연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하여 짜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지방동창회에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언제 어느때든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는 5월엔 미주동창회 방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조기 정상화 노력

- 총동창회 활동 중 모교 재학생 장학사업이 큰 비중일텐데 지금 중단된 상태에 와있죠?

장학사업은 총동창회의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기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연택 장학회 이사장 이후에 길이 막혀있습니다. 장학사업이 표류하다

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재판 과정과 별개로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회비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성기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군요. ‘동창회’를 사칭한 극소수 동문들의 유사 동창회가 업무 방해를 하면서 이원화된 것처럼 비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사회에 비쳐지면서 동문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재판 판결 결과로나 동문들의 판단으로 보나 저희가 총동창회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지난해부터 회비 납부가 예전 보다는 못하지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진

구했습니다. 학생회 간부의 사활을 건 단식투쟁과 모교 교수들이 동참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끝에 학교법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했지만 지금까지의 후속조치가 궁급합니다.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모교와 협력관계 구축

“대학의 경쟁력은 잠시도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해 논문표절, 불화 절취 의혹을 물어 모교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됐습니다.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지요. 이에 총동창회도 모교 총학생회와 교수회를 지지하면서 두 책임자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학생회 간부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고, 동조 단식교수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3일 재단 이사진이 총사퇴하기로 결의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실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학교법인, 총동창회, 교수회, 총학생회가 자리를 함께 하는 연석회의에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나날이 변화와 경쟁을 통해 발전 지형을 바꿔가고 있는데 저희 모교는 계속 갈등과 대립으로 발전의 모멘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손실도 너무 큼니다. 그럴수록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 물러나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겸허한 자세로 진정성있게 해결책을 강구하면 풀릴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변화와 성장 기틀 마련

-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총동창회의 변혁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열어나가겠습니다. 2016년의 총동창회는 동문에게 꿈과 기대에 보답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동문들의 성원과 협력의 정신은 총동창회의 번영과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다양한 동문 참여 행사가 올해도 개최 된다. (사진은 지난해 백령도 안보 견학단)

동국 경쟁력 강화는 영원한 ‘화두’ 다양한 행사로 동문 공감대 형성

보니 모교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곤혹스럽습니다. 장학회가 표류하면서 동문기업인들이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기금으로 내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 자체가 작동되지 않으니 어떻게 되느냐는 원성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무엇보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배학생들에게 불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명간 해결책

송년회도 6,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회비와 기업인 동문의 출연으로 원만히 치렀습니다. 어쨌든 총동창회는 동문의 회비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회비를 내야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동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조항이라는 생각으로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면 총동창회가 훨씬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 지난해 모교 학생과 교수회, 그리고 총동창회가 모교사태 정상화를 요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시작! 운전자보험도 역시 동부화재가 좋습니다

동부화재 참좋은 운전자보험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선보인 동부화재 -
믿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1601

차를 생각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족을 생각한다면 운전자보험! 동부화재와 함께 가족의 행복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세요!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제2015-3938호(2015.12.28))

상학과 졸업 50주년 기념문집 '나의 인생 나의 청춘' 발간



경상대학교 상학과(현 국제통상학과) 1961-1965년 재학 동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나의 청춘, 나의 인생'이 졸업5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연말에 발간됐다. 학과단위 졸업 50주년 기념문집은 대학사에 아주 드문 일로 참여 동기들은 1월21일 서울 가람한정식집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축했다. 기념문집에는 1965년 졸업사진, 1995년 상학과 65졸업동기회 창립총회, 야유회 사

진과 전창원(교수) 황용호(상학과 1회) 최용관(상학과2회) 민병희(상학과 5회) 김익상(법학과 65동기) 동문의 축하 글, 은사 이용택 박사의 글을 앞에 실었다. 이어 우리의 글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와 가족의 글, 부록 순으로 엮었다.

'우리의 글' 기고는 강부전 김공년 김동희 김복수 김만응 김세정 김영만 김영한 나성규 박도근 박정원 서건석 심명섭 양재흥 엄화용 연용희 윤영길 윤종락 이능희 이은종 이창섭 이태순 이화일 임채승 장경웅 장일성 전하운 정용근 조중근 주성좌 천재언 최병각 최창순 동문이 참여했다.



▲ 20여년간 상학과 3회동기회를 이끌어온 박도근(전 SK증권 사장) 동문을 비롯한 회원들이 신년회 겸 문집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2016 신춘문예 당선

조선일보 소설 원재운 동문
대전일보 동시 윤희주 동문
부산일보 희곡 손상민 동문

2016년 신춘문예에서 원재운(06문창)동문이 조선일보 단편소설에, 윤희주(95/99신방)동문이 대전일보 동시, 손상민(00/04사회)동문이 부산일보 희곡 부문에 각각 당선됐다.

원재운 동문의 소설 <상식의 속도>는 "해성처럼 뜨겁고 거침없이 상식 밖의 속도로 내달리는 문제작이다"고 심사위원들이 입을 모았다.

윤희주 동문의 동시 <털장갑>은 "진부한 소재이긴 하나 자연스럽고도 독창적인 문장으로 그 진부함을 이기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손상민 동문의 희곡 <잃어버린 계절>은 "그래도 이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감동을 분명하게 던질 수 있는 수작이었다"고 평가됐다.

'동국발전' 입춘 휘호



오태갑(58/61정치, 서예가)동문이 오는 2월4일 입춘을 앞두고 "동문들의 안녕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立春大吉 建陽多慶'과 '國泰民安' '順天應人' 등의 글씨 10여점을 총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왔다.

오 동문은 인간형상을 의태화한 독창적 형식의 서화도(書畵道)를 '아리랑 사람들'이라 명명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나의 학창시절

동대신문사, 그리고 '나'



▲ 대학언론 창달의 기수 '동대신문'

누군가는 청춘을 광풍노도의 시대라 하고, 또 누군가는 낭만의 시대, 혹은 순수의 시대라 한다. 나의 20대, 그때 그 시절은 어떠했던가? 남산 캠퍼스를 오르내리며 미래의 꿈에 마냥 부풀던 그 시절, 내게 잊을 수 없는 공간으로 각인된 것은 다름아닌 '동대신문사'이다. 당시 학생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경쟁자들과 겨루어 입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시험과목 중에는 작문 역량을 테스트하는 수필 쓰기도 있었는데 당시 바둑과 문학에 심취해있던 나는 "가난한 화가가 희고 검은 바둑돌을 가지고 화점을 놓듯이..."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었다. 서툴지만 소박했던 글의 내용이 주간 선생과 선배기자들의 마음에 들었던지 나는 소원하던 기자에 당당히 합격, 동대신문사의 일원이 됐다.

후배들이 맹활약하고 있을 오늘의 동대신문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당시 학생기자들은 거의가 문과 출신이었다. 때문에, 공대생이던 필자는 분명 특이한 존재였을 터. 글이 자연스러운 문과생들에 비해 기사작성이 쉽지 않아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필자와 같이 입사했던 한 새침때기 여기자가 동대신문 특집호에서 학생기자 24시를 묘사하는 기획 기사를 쓰며 필자를 '올챙이'로 일컬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최성이 써온 기사를 읽던 선배 편집장이 원고지를 휴지조각처럼 집어던진다. "이것두 기사냐? 초등학생이 써도 이보단 낫겠다"얼굴이 벌개져서 쭈뼛쭈뼛 말석자리로 가는 올챙이 최 성...!' 기자 초년병이 치러야 할 관문은 비단 이뿐이 아니었다.

신입기자 환영식이라고 모인 술자리에서 세숫대야만한 양푼에 부어주는 막걸리 원샷하기, 잊지도 않은 첫사랑 스토리를 전체기자들 앞에서 고백하기, 유신 반대 데모 취재를 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물 콧물을 피처럼 쏟아내던 일, 후교령이 내려진 교문 앞에서 절망에 차 돌아서는 동료학생들을 바라보며 기자의 무력함을 느껴야했던 참담한 기억 등등. 컴퓨터가 전무했던 그 시절, 신문은 기사작성부터 편집·발간까지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당시 서울역 근처에 있던 한국경제 조판실에서 활자를 심고, 여차여차 어렵게 O.K교정이 떨어지면 지형을 뜨고, 운전기를 돌리고....그렇게 일을 마치면 야심한 시각. 우리 기자들은 남들 다 자는 시각에 겨우 뒷골목 순두부집으로 몰려가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소주잔을 돌려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대학언론 창달의 기수를 자처하며 캠퍼스 엘리트란 자만에 차있던 대학 4년. 짝 찬 계란의 노른자위처럼 보람차고 충만한 시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대신문사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요즘 필자는 매월 '전자신문'에 통일에 대한 컬럼을 쓰고 있고, 'Korea IT Times'에도 북한 IT에 관한 사항을 기고하면서 통일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는데 IT분야의 지식층에는 필자의 글을 모으는 팬들이 꽤 많이 있다. 고백하건대, 나의 이런 왕성한 집필활동은 바로 동대신문에서 다듬어진 감각과 글의 역량인 듯 하다.

초록숲이 우거졌던 모교 캠퍼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빛바랜 그 시절이 바로 어제일처럼 아슴 떠오른다. 쓸쓸할 때면 언제나 고색창연하던 명진관에 혼자 올라가 명상에 잠기곤 했건만! 그때 만난 동기들 덕분에 참선을 배웠고 다양한 사색법도 배울 수 있었으니 내겐 진정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최성 (71/79 공경, 남서울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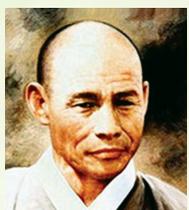
■ 동국의 인맥 - 문학분야

“한국 문학의 태백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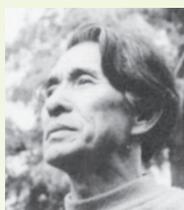
東國文學 110년...



▲ 서울캠퍼스에 세워진 만해 詩碑.



한 용 운
시인



신 석 정
시인



서 정 주
시인



김 달 진
시인



조 지 훈
시인



김 장 호
시인



강 민
시인



이 형 기
시인



송 혁
시인



신 경 림
시인



문 효 치
시인



박 제 천
시인

시

동국문풍의 발원지는 바로 만해 한용운. 그는 시집 『님의 침묵』만으로도 우리 문학사에 영원히 살아 잊히지 않는 시인이 되었다. 88편의 시들을 통해 불교와 문학을 자신의 한 몸 안에 결합시키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동국정신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선배이다.

학생문단의 시발점은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인 퇴경 권상로. 1946년 해화전문에서 대학으로 승격한 동국대 초대 총장으로서 『일광』에 시를 발표하고 『조선문학사』와 『한국사찰전서』를 저술, 국문학 연구의 주춧돌을 놓음과 동시에 한국 가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뒤를 이어 시조의 조종현, 『춧불』의 시인 신석정, 『화사집』의 서정주, 『청시』의 김달진, 「해바라기의 비명」의 함형수 등이 동국시문학의 서장을 열었다. 이들 중앙불교강원이나 중앙불전생들의 뒤를 이은 주인공은 「승무」의 시인 조지훈. 지훈은 해화전문 출신으로서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고려대에서 오랜 세월 교수생활을 하며 고대인문학의 기틀을 세우기도 했으나 그

원적은 모교 동국대학교다.

동국 시문학 전통은 1948년 5월 15일 종로 YMCA 회관에서 열린 동국대학 제1회 시낭독회에서 꽃 피우게 된다. 1962년에 「동국문단사」를 최초로 정리한 김장호(시인. 필명 장호.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 역임)에 의하면 “교수진으로는 이병기, 이하윤, 양주동이 초청되고, 선배로는 서정주, 조지훈, 송돈식, 이병철이 함께 했으며 이종산, 박항식, 김돈식, 최경자, 이흥국, 이희범, 고선엽, 김창훈, 이선우, 고원, 김장호 등이 작품을 낭독했다.

내외정세가 어수선할 때라 수도경찰의 기마대가 동원되고 작품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밖으로 문학건설 총본부, 문학가동맹, 청년문필가협회, 중앙문화협회 등이 좌우로 갈리어 각축이 심한 때였다.”고 한다. 연희전문(연세대), 보성전문(고려대)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문학의 위세가 이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다는 뜻이다.

「향미사」의 이원섭, 「강강수월래」의 이동주, 「동경까마귀」의 장호, 천재소년시인 출신의 이형기, 괴짜시인 김관식,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로 시작하는 「기다리는 마음」의 김민부, 195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후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내는 황명, 일찍 타개한 교수 출신

시인 송혁, 「농무」의 시인 신경림, 『동국시집』을 이끌어 나온 강민,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문호치, 한국어의 활달한 상상력을 보여준 박제천, 홍신선, 김초해,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시인이 된 문정희, 카피라이터이자 교수인 윤제림, 방송곡 프로듀서이자 미당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문태준 등 이루 헤일 수 없는 시인들이 동국시문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소설

소설 분야를 보면, 1940년 조선일보에 「흑풍」을 연재한 한용운이 역시 필두. 중앙불전 출신의 최인욱은 1939년 매일신보로 데뷔해서 향토색 짙은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문단을 꽃피우게 된다. 국문과 2회 졸업생인 이범선에 이르면 비로소 한국문단에 큰 족적을 남기는 작품들이 발표된다. 그의 문제작 「오발탄」은 실향문학의 대표작으로서 해방 이듬해 국문과에 입학한 유현목이 직접 감독해 1963년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한 명작이다.

김문수, 한용환, 신상성, 조정래, 황석영, 이원규, 이상문, 김신, 김갑수, 성낙주, 정찬주, 이우상, 이용범, 박성원, 손흥규, 백가흠, 윤고은, 박진규,

염승숙 등은 동국소설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들. 『만취당기』의 김문수, 대학역사소설 『장길산』의 황석영 등이 문단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조정래의 활약은 말 그대로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서 동국문학의 전통이 시문학에만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분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태백산맥』, 식민지 시대 민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룬 『아리랑』, 그리고 4.19 이후 독재와 개발시대를 다룬 『한강』 등 3부작 대하소설을 통해 한국소설사의 획을 그은 조정래는 최근 『정글만리』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맨들의 삶의 애환을 다룸으로써 문학적 관심의 폭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이원규와 이상문(현 펜클럽 이사장)은 월남전을 소재로 한 문제작 『훈장과 굴레』와 『황색인』을 각각 발표하여 한국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희곡 · 시나리오

희곡 · 시나리오 분야의 명맥도 만만치 않다. 서정주의 동기생인 최금동은 재학 중에 장편 시나리오 「환무곡」이 제1회 동아일보 시나리오 현상 모집에 당선, 후일 「애련송」으로 영화화

문학 | 동국대학교의 독보적인 인문학 산실

2016년. 모교 동국대학교가 건학 110년을 맞는다. 1906년 명진학교를 세워 불교홍포와 교육구국을 실현하려 했던 불교계 선각자들의 뜻이 한 세기를 넘어 다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동국의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불교와 문학. 불교교학의 연마와 생활수행이 종립대학의 엄중한 책무라면 문학은 우리대학의 독보적인 인문학 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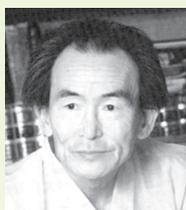
홍신선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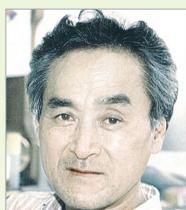
문정희
시인



윤재림
시인



이범선
소설



김문수
소설



조정래
소설



황석영
소설



이원규
소설



이상문
소설



정찬주
소설



양주동
평론



조연현
평론



황종연
평론



이근삼
희곡



이만희
희곡



정채봉
아동문학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모교 연극영화학과에서 후학을 지도한 유현목, 장한기 교수, 서강대에서 학생을 가르친 극작가 이근삼,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학영,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의 이만희가 이 분야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아동문학

아동문학은 정채봉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정채봉은 『물에서 나온 새』, 『오세암』 등 20권에 이르는 주옥같은 작품집으로 동국문학은 물론 한국창작동화의 독보적 경지를 열어나갔다. 그의 동화는 불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 수준에 이르러 기존 동화와의 차별성을 확고히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평론

평론 분야는 교수 출신으로서 무애양주동, 김기림이 자리한 가운데 조연현과 정태용이 그 시발을 이루었다. 특히 조연현은 1955년 최장수 문예지 『현대문학』을 창간하고 오랜 기간 주간을 맡아 한국문단을 이끌어온 문단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1962년에 펴낸 『한국현대문학사』는 작품과 작가

중심으로 문학의 가치를 판단한 최초의 문학사로 정평이 높다. 『시림』 동인으로 조연현과 함께 활동했던 정태용도 「순수문학론」 등 원칙에 입각한 문학론으로 조연현과 함께 평단을 이끌었다.

조연현의 뒤를 이어 모교에 부임한 흥기삼은 동국문학 중흥의 실질적인 선도자였다. 그는 평론가이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후일 모교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상황문학론』, 『문학사와 문학비평』 등 다종의 저술을 남겼다. 장문평, 조병무, 김시태 등도 비슷한 시기에 비평 활동을 한 교수 출신들.

이들의 뒤를 이어 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후학들이 비평 활동과 교수직을 겸직하면서 동국문학의 전통을 이끌어가게 된 것도 동국문학의 큰 특징이다. 한만수, 장영우, 황종연, 윤재웅, 김춘식 등이 모교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박혜경, 송희복, 김인호, 변지연, 허혜정, 김혜련, 복도훈, 서희원, 조형래, 김익균, 기혁, 이선희, 임세화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

그러나 어찌 이 뿐이라. 미당 서정주가 모교 기념시 「우리 고향 중의 고

향이어」에서 일찍이 노래한 “세계의 마지막 나라 대한민국의 / 맨 마지막 정적과 의무 속에 자리하여 / 가장 밝은 눈을 뜨고 있는 모교여 / 삼세 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겨운 한복판 / 영원 속의 가장 후미진 서재 /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 최후로 책임질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 모교여 /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어”의 그 고향의 문운이 새로운 세기에도 한창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신춘문예를 비롯, 각종 등단지면을 통해 문단에 발을 들인 동국가족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동국문학의 전통과 위용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한 대학에서 한 해에 신춘문예 당선자를 한두 명 배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지난 10년간 연평균 10명 안팎의 신인들이 등단함으로써 다른 대학과의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신춘문예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총 39명을 배출함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각종 문학상까지 포함하면 건학 100년 이후 새로운 10년간 100명에 육박하는 문인들이 새로 태어난 셈.

일례로 2009년엔 대거 8명이 신춘

문예와 대산문학상을 휩쓸었을 뿐 아니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희곡, 동화 등 세 분야를 동국대 출신들이 석권하는 대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절정은 2015년. 신춘 등단자 9명을 포함 2명의 문학상, 신인상 수상자를 배출해 동국문학의 찬란한 전통을 입증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2016년 신춘문예에 3명이 등단했다.

동국문학의 이 같은 성취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빠질 수 없다. 학부와 대학원(국어국문학 및 문예창작학) 및 특수대학원(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이 운영되는 관계로 물량 자체가 커진데다가 창작교실, 합평회 등 오랜 창작전통이 몸에 익어서 입학 자체부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합평회는 치열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하다.

동문 선배들과의 유대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모든 대학들이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교 동국대학교는 문인배출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위 대학이다. 만해 한용운으로부터 면면약존 이어져 오는 모교의 자랑! 긍지와 자부심으로 맞아도 좋을 건학 110년이다.

윤재웅

(국문 81.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

“우리 모두는 대하드라마 주역이었다”

‘2015 동국인의 밤’ 대성황 ... 시 낭송회로 행사 품격 높여



▲ 지난해 12월14일 동국인의 밤에 700여 동문이 참석해 만남과 소통, 화합으로 동국인의 자부심을 한껏 빛냈다.

‘2015 동국인의 밤’은 우리 모두가 만든 동국인의 작품이었다. 우리는 그 대하드라마의 주역이었다.

총동창회가 주최한 ‘임시 이사회 및 총회 / 2015 동국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총동창회 내부사정으로 3년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겨울비에도 아랑곳 없이 7백여명이 운집했으며, 동국인만의 아름답고 행복한 밤을 연출했다.

“동창회 행사가 확연히 달라졌다” “시 낭송회는 맛과 멋이 동국인다웠다” “우정의 성과이자 모교 사랑의 극적 표현이다” “동국의 희망을 보았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임시 이사회 및 총회, 2부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3부 시 낭송회, 4부 여흥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동창회의 미래는 밝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동창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답은 우리 동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80년대 이후 젊은 학번들이 대거 참석, 총동창회 차세대 주역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원배 모교 대외부총장은 축사에서 “모교와 동창회는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적 관계”라면서 “서로 협력하여 힘차게 동국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2016년 3월1일 부임하는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은 “신심을 다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인사했다.

제1부는 정환민 총동창회 사무총장



▲ 경주, 울산 동문들은 낯선 날씨에도 관광버스로 상경, 행사에 동참했다.

의 사회로 성원보고가 있는 뒤 “임시 이사회 및 총회는 동일 안건으로 동시에 개최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1호 안건으로 ‘모교 재단 파견 이사 불신임 및 송환의 건’이 상정되었다. 정 사무총장은 안건 설명에서 “오늘 안건은 지난 12월3일 모교 분규사태의 책임을 지고 재단 임원 전원 이 사퇴를 결의함으로써 의미가 없어

졌다”면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대신 모교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모교 정상화 결의문 채택

전영화 당연직 총회 의장은 1호 안건에 대해 참석동문들의 동의를 얻어낸 뒤, 곧이어 2호 안건인 ‘모교 정상화를 위한 25만 동국인의 결의문 안

건’을 상정했다.

이경석(67도시공학과) 상임부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은 △학교법인 임원 사퇴 결의 즉각 이행 △학교법인 이사회 전면 개편 △이사장과 총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사무처에서 종단, 학교법인, 학교당국에 결의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도록 위임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제2부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시상 순서로 최진식(77무역학과, (주)심팩 회장) 동문에게 영예로운 ‘대상’ 상패(순금 1냥 모교마크 포함)를 수여했다. 최 동문은 창업 10년만에 1조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산업 역군으로 모교에 발전기금 16억원을 출연하는 등 동문사회의 귀감이 되어왔다.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은 이덕화(70연극영화학과, 배우 겸 탈렌트) 동문에게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포도당 초동자문병’을 시상했다. 이 동문은 수백편의 영화와 TV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했으며, 연극영화학과 출신 연기자들의 멘토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체육특별공로상’은 최근 모교 야구부 7관왕을 이끈 이건열(82경찰행정학과) 감독을 선정, 상패 및 부상 2백만원을 전달했다.

최우수단체상은 역동적 활동으로 단위동창회의 모범사례가 된 82학번 동기회(회장=윤병관)를 시상하고 조직활성화비 1백만원을 지원했다.

후배 장학금 전달

김종필(82행정학과, 내일신문 정치부장)동문 사회로 진행된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 행사는 먼저 동국인

“동창회가 확연히 달라졌다” ... 7백여명 운집

모교 정상화 결의문 채택 - 후배 장학금 수여식 등 가져

동국인 대상 최진식 동문



최진식 동문은 2012년 모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 사재 50억을 들여 필정장학재단을 설립, 매년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모교 동국대에는 그동안 발전기금으로 16억4백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창업 10년만에 연매출 1조원 안팎의 중견그룹을 일궈낸 신화적 기업가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글로벌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국 연예인상 이덕화 동문



이덕화 동문은 1973년 TBC 동양방송 공채 13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해 TV와 영화계의 톱배우로 자리매김해왔다.

사랑과 야망, 한명회 등 수백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 주연을 맡았으며, 방송3사 연기대상, 대중상, 백상예술대상, 모스크바영화제 남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운영위원장(2008),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2009) 등을 지냈다.

현재 KBS2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에 출연하고 있다.

체육특별공로상 이건열 동문



이건열 동문은 2013년 모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해 그해 전국대학야구 3관왕에 올랐으며, 2014년 시즌서 4관왕을 보태 7관왕으로 한국대학야구사에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야구부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활약, 동메달을 획득했다.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스에서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2년간 현역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 후 SK, LG, KIA 등에서 코치로 일했다.

대상을 받은 최진식 동문이 설립한 필정장학회에서 김성희(법학과) 등 입법·행정고시 합격자 34명에게 장학증서와 1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금년 10월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마친 85학번동기회(준비위원장=김상배, 물리학과)는 30년 후배인 2015학번 재학생 34명에게 3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문 시인 대표시 낭송

한용운-서정주-조지훈-
신경림-문정희 대표시 소개

제3부는 한국 문단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동문 시인들의 대표적 시들이 낭송되었다. 김종필, 차연신(85연극영화학과) 두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시 낭송회는 신경림(54영문학과) 동문은 자작시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친구들'을, 문정희(66국문학과) 동문은 자작시 '먼길'을 직접 낭송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만해 한용운(06명진학교) 동문의 시 '님의 침묵'은 한상권(89경영학과, KBS아나운서) 동문, 동탁 조지훈(혜화전문 졸업) 동문의 시 '승무'는 조충미(81교육학과, 에이서유학원장) 동문, 미당 서정주(중앙불전 졸업) 동문의 시 '자화상'은 제자 문정희 시인이 각각 낭송해 동국문학의 깊이와 무게를 재확인했다.



▲ 동국인 대상을 받은 최진식 동문이 후배들에게 필정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 2부 사회를 맡은 김종필(왼쪽) 동문과 차연신 동문.



▲ 82학번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응원가로 휘날레를 장식했다.

제4부는 건배 제의와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응원가 제창 등으로 연말행사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최진식 대상 수상자는 건배사로 '동국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를, 연예인상 이

덕화 동문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로 선창하며 참석 동문들의 힘찬 화답을 이끌어냈다.

비구니 성악가 정행스님의 '그리운 금강산' 노래로 시작된 장기자랑은

엔터테이너 김종석(76연극영화학과, 서정대 교수) 동문의 마술쇼와 이영옥(84무역학과), 박성기(82국문학과), 차연신 동문의 열창으로 축제의 흥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

전영화 회장이 직접 추천한 행운권 최고상인 '48인치 LED커브드 TV'는 윤병관 82학번 동기회장이 당첨돼 '82학번 최고의 날'로 만들었다.

행사의 대미는 응원가로 장식했다. 모교 야구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응원선봉대로 나섰던 82학번 동문 50여명이 무대로 올라와 행사장에 있는 동문들과 함께 "창창한 남산 기슭, 우리 동대는..."으로 시작되는 응원가를 우렁차게 부르고 난 뒤 아쉬운 작별인사로 재회를 약속했다.

경찰청 인사

서울경찰청장 이상원 동문



이상원(77/81경행, 치안정감)동문이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구립 28일 취임식에서 이 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각박한 세태로 '뛰는 경찰 위에 나는 범죄'를 낳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초치안을 확보하고 생활법치 확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동문은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남청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인천청 수사과장, 서울 은평서장, 경찰청 형사과장·수사국장·보안국장·경무인사기획관, 인천청장 등을 역임한 후 2014년 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부산경찰청장 이상식 동문



이상식(대학원 박사)동문이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부산경찰청장으로 영전, 구립28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초치안

확보에 올인 △치안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과 보호받고 우대받는 풍토 조성 △시민들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 △역동적이고 활기찬 명랑한 경찰 조직문화 조성 △시민의 인권 수호 등을 다짐했다.

행정고시(34회) 출신으로 영국 주재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경기경찰청 3부장,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강성복 치안감



김상운 치안감



허영범 치안감



이재열 치안감



조현배 치안감



박경민 치안감



박진우 치안감



유현철 경무관



남택화 경무관



전창학 경무관



최해영 경무관



이상로 경무관



이은정 경무관



최관호 경무관



김해경 경무관



진정무 경무관



박건찬 경무관



하상구 경무관

- △남택화(79/83경행)=경기경찰청 제1부장
- △전창학(79/83경행)=경남경찰청 제1부장
- △최해영(79/83경행)=충남경찰청 제2부장
- △이상로(82/89경행)=충남경찰청 제1부장
- △이은정(84/88경행)=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립외교원)
- △최관호(84/91경행)=광주경찰청 제1부장
- △김해경(92/95행원)=서울경찰청 경무부장
- △하상구(대학원박사과정)=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 △박건찬(대학원박사과정)=서울경찰청 경비부장
- △진정무(대학원박사수료)=경기 분당경찰서장

총경 승진·전보

- △반병욱(76/80경행)=인천경찰청 서부서장
- △강현신(77/81경행)=부안서장
- △김명호(77/84경행)=울산청 112

- 종합상황실장
- △김성근(77/84경행)=강원청 보안과장
- △전병용(77/84경행)=경기청 제2청 생활안전과장
- △전병현(77/84경행)=김해시 중부서장
- △신상석(78/85경행)=경기청 112 종합상황실장
- △이승길(78/85경행)=완주서장
- △김환권(79/86인첵)=상주서장
- △류재화(79/85경행)=대전청 경비교통과장(승진)
- △이범규(79/86경행)=양주서장
- △윤동춘(80/84국문)=강서서장
- △강신걸(81/87경행)=마포서장
- △박형길(81/88경행)=혜화서장
- △김상우(82/89경행)=서울청 112 종합상황실장
- △최성영(83/90경행)=서울청 제1기동대장
- △박영수(83/90전자)=교육(승진)
- △김주원(84/91경행)=정읍서장
- △이을신(84/92경행)=교육(승진)
- △이지춘(84/92경행)=서울청 생활질서과장
- △임병숙(84/88국사)=교육(승진)

- △오상택(85/92경행)=곡성서장
- △오충익(86/94경행)=교육(승진)
- △김택수(87/94경행)=강원경비교통과(평창올림픽기획단장, 승진)
- △김병기(88/95경행)=경찰대학 지방이전건설단장
- △김태형(89/96경행)=교육(승진)
- △엄성규(90/97경행)=음성서장
- △손호중(91/93행원)=화천서장
- △최보현(92/96법학)=경찰청(승진)
- △한종욱(96/01대학원)=경찰청 외사정보과장
- △윤명성(03/12대학원)=경찰청 홍보담당관
- △박지영(06/10대학원)=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 △김광호(07/10행원)=광진서장
- △김경원(11/15경찰사법대학원)=용산서장
- △주진우(14/ 경찰사법대학원)=교육(승진)
- △김성섭(15/ 대학원)=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박기태(15/ 대학원)=중부서장
- △곽순기(대학원 입학)=은평서장
- △윤소식(행원 최고위치안정책과장수료)=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치안감 승진·전보

구립 22일 경찰청 인사에서 김상운(78/85경행)동문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서, 이재열(79/86경행)동문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되었으며,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인 강성복(77/84경행)동문은 경찰교육원장, 허영범(79/85경행)동문은 대구지방경찰청장, 박진우(대학원 박사과정) 동문은 경찰청 수사국장, 박경민(08/10대학원 박사)동문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조현배(07/12대학원 박사)동문은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경무관 승진·전보

△유현철(78/82경행)=광주경찰청 제2부장

취임·영전

KBS 아트비전 상임이사



신창섭(75/79경영) 동문이 구립3일 KBS 아트비전 상임이사에 취임했다. KBS 경영본부 총무국장, 청주총국장 등을 역임했다.

노루도료 상해유한공사 총경리



변정권(77/84회계) 동문이 구립31일 노루그룹 인사에서 노루도료(상해)유한공사 동사장 겸 총경리에 선임됐다. 1989년 노루페인트에 입사해 노루비케미칼 사장을 지냈다.

아모레퍼시픽 SCM 부서장



강병도(78/84공경) 동문이 구립8일 아모레퍼시픽그룹 2016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SCM Unit장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광중(78/84임학) 동문이 1월1일부터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 당산동 소재 (재)충북학사 신입 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지역정책학회 회장



송일호(79/82경제, 모교 경제학과 교수,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동문이 1월22일 사단법인 한국지역정책학회 신입 회장에 선출됐다.

IBK기업은행 IT그룹 부행장



조영현(80/87회계) 동문이 IBK기업은행 IT그룹 부행장(CIO)으로 승진했다. 여신심사, 신용감리 등에 정통한 기업금융 전문가로 최근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일해왔다.

AK캠텍 부사장 승진



한승훈(82/86경영) 동문이 구립 6일 애경그룹 201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AK캠텍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IBK시스템 대표이사



조영찬(83/87경영) 동문이 구립 4일 기업은행의 IT계열사인 IBK시스템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IBK기업은행 IT본부 부행장을 역임했다.

국민은행 포항·경주 지역본부장



이상록(83/90무역, 경주직할동창회장) 동문이 1월초 국민은행 포항·경주지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장



곽웅일(83/90일문) 동문이 구립4일 (주)신세계 정기인사에서 신임 인천점장(상무)으로 부임했다.

힐라코리아 전무



이동식(83/92무역) 동문이 1월4일 힐라코리아 임원 인사에서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대검찰청 대변인 영전



김후곤(84/91법학) 동문이 1월6일 법무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영전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우리카드 부사장



이승록(85/89회계) 동문이 1월4일 우리카드 신입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우리은행 마케팅지원단 상무를 역임했다.

NH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윤배(87/91무역) 동문이 1월15일 NH손해보험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이달 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건설공제조합 기획상무



김종서(03/06일반대학원) 동문이 건설공제조합 기획상무에 선임됐다고 구립21일 밝혔다.

전북병무청장



김장호(04/07행원) 동문이 1월4일 제40대 전북 병무청장에 취임했다. 국방부 감사관 등을 지냈다.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선기현(95/99대학원 미술)동문이 (사)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 서양화가로 현재 풍남문화법인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다.

수상

제1회 문덕수문학상



신규호(62학번 국문과, 전 성결대 부총장) 동문이 구립7일 시집 '거대한 우울'로 제1회 문덕수문학상을 수상했다.

500만불 수출탑



황도원(79/83물리) 동문이 대표로 있는 알파플러스(주)가 구립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3억달러 수출탑



민동욱(91/98전기) 동문의 경영회사 엠씨넥스(주)가 구립 7일, 제52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3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개원

의료법인 효천요양병원



오혜경(98/00국제대학원)동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의료법인 오해본의료재단 효천요양병원이 지난해 11월 오픈됐다.

쾌적한 환경과 명성있는 의료진, 최신식 시설, 환자를 섬기는 5가지 마음가짐(열심, 애심, 양심, 효심, 행심)을 자랑하고 있다.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376-47 (곤지암)으로 250 병상을 갖추었다. 031-799-8600

신간 도서

발췌본 「삼국사기」 「고려왕조실록」



조병찬(59/63농학, 동국대 명예교수)동문이 '같이 읽는 삼국사기'와 '같이 읽는 고려왕조실록' 발췌본을 엮어 내놓았다.

시집 「토란잎」



최순열(68/72국문, 전 동국대 부총장) 동문이 3번째 시집 '토란잎'을 1월22일 출간했다.

시집 '어둠을 빛이라 불려다오' '슬픈 어릿광대' 이후 발표된 시 가운데 60편을 모아 엮었다.

소설집 「그 남자의 가출」



손홍규(93/02국문) 동문이 작품 9편을 모아 4번째 소설집 '그 남자의 가출'을 펴냈다.

공연·전시

뮤지컬 온조 '서울이 되다'



김면수(79/83행정, MS뮤지컬컴퍼니 대표이사)동문은 구립 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문화일보홀에서 <2천년전의 서울 이야기, 뮤지컬 온조의 프리퀀 '서울이 되다'>를 무대에 올렸다.

연극 '가족입니다'



권경하(본명=영희, 84/88연영, 배우, 국민대 콘서바토리 방송연예과 교수)동문이 연극 '가족입니다'에서 엄마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공연은 1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에서 열린다.

곤충의 눈-시선의 기원 사진전



주도양(94/00미술) 동문이 1월15일부터 3월18일까지 서울 율곡로 사비나미술관에서 '곤충의 눈-시선의 기원전'을 연다. 신작 사진 30여 점을 포함해 필름, 설치 등 총 70여 점이 나온다.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료법인 창민의료재단
제천노인병원 · 제천병원

이사장 **오 만 식**

충북 제천시 북부로13길 94 (천남동)
노인병원 : 043) 640-6000
제천병원 : 043) 640-6100
휴 대 폰 : 010-6679-6000
이 메 일 : youngmin555@hanmail.net



주 (주)HIMC

www.himc.kr

HAE IN MACHNERY Co.,Ltd
HYDRAULIC CYLINDER



(주)HIMC 산업용 유압실린더 제조

代表理事 **李 重 範**

Mobile. 010-8510-9648 / E-mail. beom@himc.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4길 62
TEL. 055-297-3080, 253-3050 / FAX. 055-297-2662

동문 특별 우대
본교출신
→ 등록금 30%할인
동문추천원우
→ 등록금 10%할인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35기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 REACEO

동국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35기**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과정

Infra	Professional	Information	Curriculum
학계와 업계의 최고 전문 인적네트워크 구축	명망 높은 부동산·자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교·강사진	우리사회 리더를 위한 최신정보 제공	이론과 실무를 이상적으로 결합한 사례중심의 프로그램

50여명의 전문 교·강사진의 구성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며, 34기까지 1,800명의 원우와 함께합니다.

▶ 교육구성

구 분	내 용
교육기간	2016년 3월~2017년 1월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21:30 1일 1~2강좌
교육내용	부동산의 개발 및 금융/자산의 운용 및 관리/투자 재테크 및 사례연구 등

▶ 원서접수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6. 3. 14(월)까지 선착순 접수
서 류	입학지원서, 사진
홈페이지	http://www.dgureceo.com FAX : 02.2263.8576
이 메 일	ogongy@dongguk.edu
우 편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과학관 516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TEL. 02.2260.8572 / 02.2260.8574 http://www.dgureceo.com

제일모피
여자, 그 아름다운 이름-제일모피
다가서면 돋보이는 여자
돌아서도 향기가
되는 여자

대표이사 **김 세 준**
(서울이과대학 화학과 75卒)

•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17-1 반월공단 B1-90
TEL. 031) 491-7691~3 FAX. 031) 491-7694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2-1
TEL. 02) 2698-2531~2 FAX. 02) 2698-2533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Samkoo
자리의 가치를 아는 기업
업무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기업
일이 아니라 가치있는 자리를 만드는 기업

·P.M(Properly Management) : 임대차관리, 투자관리, 부동산 자산평가
·F.M(Facility Management) : 미화, 시설관리, 조경, 영산, 안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생산, 제조, 유통, 공항 안내, 조리보조, 사무 관리, 판매, 단체급식, 구내식당운영
·GLOBAL BUSINESS : 고베송(해외직구 배송대행 - 미국 뉴지, 알리웨이)
·ACOS(Albatro of Countryclub One-stop Service) : Agency(마케팅), 클럽하우스, 대식당, 골프장 시설관리(FM), 구내식당
·SECURITY : 경비원 산원교육, 공영경비, 특수경비, 시설경비
·C.L(Contract Logistics) : 공급망 관리, 물류물류, 창고관리
·Silver Care Service : 노인 요양, 재가, 복지증구 판매 및 대리
·Green S Service : 실내 공기질관리(AQI) 개선, 비탄미립자 특별관리

Outsourcing Frontier 대표사 (주)삼구아이앤씨 http://www.samkoo.com
서울시 중구 여의대방로24길 92 삼구빌딩 · 대표전화 02.828.3839 · 전국공통 1588.2239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dongguk UNIVERSITY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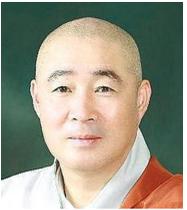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 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5년 11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접수분 >

고문 분단금				부회장 회비				금액 · 가나다 순
 구재태(63경행) 100만원	 이석용(54정치) 100만원	 이태영(51사학) 100만원	 형종호(56법학) 100만원	 강영덕(66상학) 100만원	 공기태(79화공) 100만원	 구윤관(74회계) 100만원	 김동빈(64행정) 100만원	
 김영철(68경영) 100만원	 김호현(76체교) 100만원	 김진문(64경영) 100만원	 나동연(80무역) 100만원	 별조스님(70불교) 100만원	 위재춘(64경영) 100만원	 이계방(72법학) 100만원	 자광스님(64인철) 100만원	
 장성호(99사대원) 100만원	 정상철(70경제) 100만원	 정진태(00행정) 100만원	 최인규(79통계) 100만원	 태진스님(96대학원) 100만원	 해운스님(11불교) 100만원	<p>회비는 1년에 한 번!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1백만원 이상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지도위원 30만원	최석권(84법학) 20	한만수(77국문)	이건명(70토목)	공진식(57경제)	김정용(82회계)	박태원(65국문)	윤승식(90대학원)	정란이(90농생)	형성훈(04행정)
강성윤(63행정)	상임이사 20만원	이사 10만원	이동철(69경영)	권은정(08불교미술)	김정희(61경영)	박훈(73경영)	윤오섭(74화학)	정영자(03사대원)	혜성스님(63불교)
권기중(60불교)	강병중(03사대원)	고경찬(80경제)	이문규(78경영)	권혁희(83행정)	김종삼(61식공)	배상덕(94북한)	윤환(66사학)	정운섭(57사학)	혜안스님(96선학)
권오갑(62농경)	김경남(60정치)	김교필(76화학)	이문호(72임학)	길기숙(85전산)	김종선(78공경)	백기원(64정외)	이계연(83가교)	정일주(96문원)	홍승하(70농학)
김운목(91행정)	김광철(76경영)	김규태(46영문)	이상기(67상학)	김강일(75사학)	김종수(82영문)	백길웅(85인철)	이남영(94행정)	정일준(71경제)	홍종관(68경영)
김흥우(60연극)	김동준(80경영)	김득응(83사회)	이상훈(86행정)	김경자(92대학원)	김종필(86의학)	백대성(69연료)	이동식(83무역)	정현중(67농경)	황국성(84무역)
명성스님(64불교)	김석희(57법학)	김병수(83회계)	이창학(80영문)	김기덕(83행정)	김흥식(64의학)	변봉현(67자동차)	이상동(85법학)	조병권(85경영)	황찬욱(80법학)
박삼선(51법학)	김동진(69경영)	김영생(81영문)	이청수(87산공)	김낙현(82체교)	나덕찬(84회계)	서광익(85전기)	이선주(90의학)	조석래(75전자)	황태영(83행정)
성낙훈(82행정) 10	김홍진(69경영)	김영석(87법학)	조남현(73무역)	김면수(79행정)	노수길(65경영)	신남수(87경영)	이성규(89행정)	조일권(55법학)	
신현태(54경제)	김후곤(84법학)	김영석(87법학)	조석규(68도공)	김명호(61식공)	대용스님(98불원)	신상조(76화학)	이양길(64인철)	조종구(06행정)	
안병창(59상학)	문기재(03행정)	박윤규(85토목)	진재경(73영문)	김무권(73화공)	덕현스님(89불교)	신진우(83경제)	이연석(66경영)	조철구(65수학)	특별회비
양규철(64농학)	손영순(09불원)	박재구(76식공)	차연신(85연영)	김문재(84국문)	류인수(80국교)	안병소(64정외)	이영규(73수학)	채수일(57정치)	김석만(89사대원)
우희영(61영문)	안명근(65농학)	박재수(64경영)	차진구(78건축)	김민수(79경제)	민현석(61국문)	안현동(87경영)	이정희(61농학)	채택수(64대학원)	=20만원
이재호(79경영)	이건열(82경영)	박현우(00사대원)	최해수(05사대원)	김범동(92무역)	박광태(61국문)	양정기(65통계)	이종만(05국제)	최성식(80회계)	최미경(03세무회계)
이점구(96산원)	이명선(67농학)	백대운(70전자)	한동식(99사대원)	김상문(81법학)	박동훈(84회계)	영안스님(00행정)	이준(56생물)	최승구(61법학)	=5만원
종상스님(86행정)	이춘신(65수학)	서동부(92사대원)	황진택(95행정)	김상일(92의학)	박두호(63경영)	오건식(64경영)	이항수(83회계)	최승도(65상학)	평생회비 50만원
지만호(87행정)	이춘필(99불원)	신화섭(84화학)		김성훈(96행정)	박성원(97북한)	오성태(86경영)	이홍윤(82회계)	최영대(00사대원)	이광훈(04문원)
허길남(63농생)	임창수(95사대원)	심현설(63경제)	연회비 3만원	김석중(02대학원)	박용철(62식공)	우근식(98경영)	일선스님(95불원)	최영숙(96영문)	
홍영춘(61불교)	정미숙(84영문)	오수환(84경제)	강덕선(64경제)	김성환(65화학)	박익주(59정치)	원종구(68경제)	임금동(81경영)	최예형(53경제)	
	최용환(64농학)	우병용(03사대원)	강무등(64농경)	김세훈(72전산) 10	박재필(71경제)	원치선(95경영)	임운기(60농학)	최종완(61법학)	
부회장	최중수(08사대원)	윤양배(99경영)	고경수(03경영)	김완석(81농학)	박정인(69경제)	유승환(05경영)	장석기(58정치)	하문수(55경제)	
김광중(78임학) 10	하용운(00경영)	윤재웅(81국문)	고홍식(62물리)	김은겸(86농학)	박종열(81행정)	유희민(07행정)	장석울(70식공)	학명스님(04불원)	
	한규범(78경영)	윤천수(72정외)		김재웅(65영문)	박찬홍(65상학)		장영상(66식공)	한운섭(68경영)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27일 접수분 >

지도위원 30만원	이사 10만원	연회비 3만원	박상일(64대학원)	이정자(67불교)	최재오(57법학)	박진호(65경영)	권진영(87불교)	박수정(85국문)	조대정(92국민윤리)
서영수(81행정)	김난영(82경영)	강길구(64식공)	박성주(87건축)	이중오(88영문)	하혜순(92불원)	=10만원	권하나(00중문)	송자선(88일문)	차주희(02교육)
정동귀(57정치)	김영윤(76정외)	강충구(81토목)	박정후(2002통계)	이창희(75농학)	현용기(81행정)	오선호(84영문)	김계성(83영문)	신개복(83국사교육)	하지연(97일문)
조종진(54정치)	박인동(79사회)	김기주(79국문)	박지원(56경제)	이재근(85전산)	홍승범(98정보)	=1만*23회차	김민경(91수교)	안정은(98행정)	한재수(73수교)
조창현(64경영)	윤대호(75전자)	김상돈(82회계)	서동일(84경영)	임종홍(86경영)	홍의식(86경영)	=3만*3회차	김세연(01불교)	양경숙(97교원)	황보성(99국교)
	이영길(64응생)	김완주(63통계)	오무웅(92불원)	장경식(75사교)	홍종국(70건축)		김수정(93수교)	엄정식(90수교)	
상임이사 20만원	이장화(84무역)	김원철(68영문)	오태갑(58정치)	장세인(69정외)		단체회비	김용임(83국민윤리)	유세희(86농생)	
유원표(75통계)	한승범(87영문)	김유련(71경영)	우정스님(96불원)	전윤중(79전기)	특별회비	동국대학교사범대학	김용(82한문)	유승현(02국교)	
	함혜현(93경영)	김윤희(89행정)	윤장근(65법학)	정강대(81법학)	김종필(82정외)	부속여자고등학교	김재윤(91체교)	이기근(76수학)	
	황기석(99사과대)	김창식(63국문)	이상용(75건축)	정승석(75인철)	=3만*1회차		김정현(90국민윤리)	이연숙(78사교)	
		담교스님(95교원)	이재동(97불원)	조성제(95대학원)	동명사		김창용(08체교)	이정미(80영문)	
		박득근(73경영)	이재면(77임학)	최병윤(82경영)	=2만*23회차		노여진(03국교)	이혜주(96역사교육)	
			이재항(64경제)	최은기(82토목)			박상재(87행정)	전정란(81농생)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삼성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삼성그룹 소셜 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카카오프러스친구>검색>삼성